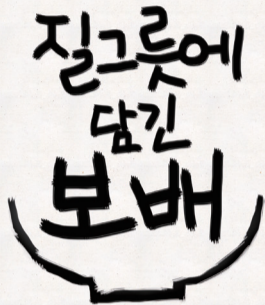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가을학기 연합 개강예배



- 일시 _ 9월 12일 (월요일) 오후 6시
- 장소 _ 서울대 노천강당 (100동)
- 강사 _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 문의 _ 조예상 (사복12, 010-6667-9185)

질그릇에 담긴 보배(고후4:7)
질그릇에 담긴 보배(고후4:7)
(2쪽 97)

개강예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개강예배가 9월 12일 월요일 저녁 6시에 서울대 노천강당(풍산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개강예배의 말씀은 유기성 목사님(선한목자교회)이 담당하며 주제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고후4:7)'이다. 예배 후에는 음미대 식당에서 단대별로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다.

주요 기사 안내

- 1면 교수칼럼 ... 민병곤 교수(국어교육과)
- 2면 간사칼럼 ... 백향목 간사(ESF)
- 3면~4면 수련회 간증 ... 오은총(CMI)
수련회 간증 ... 송호재(CCC)
70년대 기독교인 선배들의 발자취 ... 한상휘 기자
- 5면~7면 단대기연 · 선교단체 소식
- 8면 교외 사역 보고 ... 강한나(사범기연)
서기연 아침기도회 안내

교수칼럼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대학에 들어온 첫째 여름 고향 교회 친구들과 몇몇이서 함께 지리산을 등반했다. 한 나절 얇은 산을 오르는 외에 등산이라고는 해 본 적 없는 대학 신입생들이 무슨 호기가 있었던지 4박5일 간의 지리산 등반을 하겠다고 나섰다. 무거운 짐 때문에 힘겨웠고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 밤이 어둑어둑해

지도록 공포감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참 즐거운 시간이었다. 산중에서 들었던 이름 모를 산새의 청아한 울음 소리는 영혼까지 맑게 해 주는 듯하였다. 입시 준비에 찌들었던 고교 시절의 스트레스도, 시대와 사회적 현실 앞에서 작아지기만 했던 대학 신입생의 고뇌와 방황도 훌훌 털어버리고 대자연의 넉넉한 품에 안길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대학 입학식 때 있었던 학장님 축하 말씀 중에 "프레시멘 블루(freshmen blue)"라는 표현이 생각난다. 신입생들이 낯선 대학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우울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지방 학생으로서 서울 유학 생활을 해야 했던 나도 그랬지만 요즘 서울대로 유학을 오는 외국 학생들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생기는 이유에 공감이 된다. 그런데 내가 신입생 시절 느꼈던 우울감은 단지 낯선 환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세계관의 문제였다.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현실 참여의 동력을 제공했던 철학적 이념들이 나의 세계관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선배들과의 세미나에서는 유물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서적들을 함께 읽고, 신앙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공부했다. 그 둘 간의 조화를 꾀한다는 것은 대학 신입생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당시의 생활은 일종의 자아 분열 상태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곳에는 늘 따뜻한 위로가 있었다. 공법을 몰같이 정의를 하수같이(암 5:24) 흐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었다. 시대가 요청하는 기독교 신앙과 실천을 함께 고민하는 친구들과 선배들과의 교제는 큰 힘이 되었다. 그래서 몇몇 형제자매들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가난한 이들의 이웃으로 살아가기로 하였다. 봉천동의 달동네로 거처를 옮겨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적 실천을 모색해 나갔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철학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무력한 기성 교회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자아 분열 상태가 아니라 정체성을 찾은 것 같았다. 그러나 내가 정체성을 찾았다고 생각할 무렵 우리의 움직임은 예의 주시하는 기관도 있었다.

우리는 몇 해를 함께 수고하였지만 공동체는 결국 열매 없이 해산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었던 것처럼(눅 5:5), 우리도 그러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삶을 자신이 가야 할 길로 알았지만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길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만나야 했고 그것은 사람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데서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5:8)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공동체는 해산되었지만 수사는 계속되었다. 나를 포함하여 여러 형제자매들이 구속되었다. 유치장에 수감되었던 날을 잊을 수가 없다. 경관이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였다. 유치장에 수감하기 위한 의례적인 절차이다. "너의 선 곳은 거

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출 3:5). 나는 그렇게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원하셔서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싶었다. 나는 하나님 뵈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꾼을 부르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출 3:6).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하여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직접 만나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살후 3:9). 믿음의 열조들과 사도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속의 역사를 이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이전의 생업으로 돌아갔다. 시몬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었다. 다시 돌아간 어부의 삶은 어떠했을까? 역시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더니"(요 21:3), 예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6).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하니 "내 양을 먹이라"(17)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처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당신의 양을 먹이라는 것이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떠피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18) 사명을 받은 후에는 임의로 다닐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나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에게 교회를 통하여 장로의 직분을 맡기셨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는 이 사명을 되새긴다.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고 내가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마 11:29) 말씀하신다. 우리는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 한국인의 삶은 더 그런 것 같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 그렇다. 때로는 일상의 삶에 쫓겨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잠깐 잊어버리기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고자 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려두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경우도 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과 항상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부름 받은 자가 부르신 자를 떠나 그물을 던진다면 밤이 맞도록 수고한들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위하여 풍랑도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며, 박 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는 분이다. 좌우를 분간할 줄 모르는 니느웨의 백성까지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요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7).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땅의 교회를 위하여, 속한 공동체와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기업을 위하여,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자.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으므로, 크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의 도피처는 아니다. 교회는 택한 백성을 위하여 지으신 구원의 방주이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벧전 2:9)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서울대 기독교학생들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세상을 향한 당신의 구원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권능 있는 제자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민병곤 교수(국어교육과)

간사 칼럼

동행해줄 영성



지금으로부터 약 600일전 서울대학교 담당 간사로 발령받아 캠퍼스를 밟았습니다.

저희 단체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전도를 위해 캠퍼스를 나서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이 캠퍼스이지만 “아무도 없어도 나라도 도전해보자!” 라고 다짐하며 호기롭게 캠퍼스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캠퍼스의 상황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캠퍼스의 길거리에는 전도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너도나도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나 선교단체가 서울대생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서울대라는 상징성을 생각하면 이 캠퍼스 사역의 열매가 각 단체마다 여러모로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모두가 공감하는 이유는 뛰어난 인재들이 집약되어 있는 이 서울대가 이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전략적 지점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상황은 좀 달라보였습니다. 추수할 것도 많고 추수할 일꾼도 많아 보입니다. 캠퍼스의 복음전도자들의 열의도 매우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을 접한 이들의 반응은 매우 차갑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뜨겁게 반대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했고 생각보다 많은 전도자들이 전도를 통해 자신의 공동체의 구성원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열심에 대한 대학생들의 거부감은 생각보다 큼니다. 이런 일방적인 전도는 너무 귀한 영혼들을 얻게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잃기도 합니다.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1명이 공동체와 연결되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다면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명을 얻으면서 99명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 기독교에 대해 닫힌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일까? 많은 학생들이 일방적인 전도로 불쾌감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가가서 물티슈만 쥐도 격렬하게 싫어하고 차갑게 무시합니다. 일방적인 전도로 인해 우리 단체의 인원이 몇 명 늘어나더라도 그와 동시에 복음에 대한 캠퍼스 전체의 반응이 딱딱해지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이 전도가 결코 캠퍼스 복음화에 진보를 이루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전도로 인해 각 단체마다 다양한 모습의 열매를 얻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캠퍼스 내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영적인 반응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이 진짜 ‘열매’를 얻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핍박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학생들이 기독교에 보이는 반대반응은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핍박은 사도들의 부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인정하기 싫은 진리 앞에서 끝까지 정직한 모습이 싫어서였습니다. 제자공동체의 비겁함,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과 다르게 극심한 선을 행하고 순결을 외치는 그들에 대한 불편함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있는 캠퍼스에서는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모습이 그들의 격렬한 반대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단순히 진리를 인정하기 싫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리답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태도에 그들을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한 호소력과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히려 괴로워하며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도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련하게 전도하라는 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도 시대와 상황에 맞게, 또 지역에 따라 다른 말투로, 다른 방식으로 전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전도를 거부하는 세대에게 우겨넣는 방식이 아닌 순결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복음을 들고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관계성 전도입니다.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친밀감을 쌓아갑니다. 어떤 교회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한 주간 플랜을 짜기도 합니다. 월요일에는 밥 먹기, 화요일에는 음료수 사주기, 수요일에는 카카오톡 선물보내기, 그리고 대망의 주일! 부활절 총동원주일 초청장을 전하면서 초청하기. 결국 모든 관계형성 과정은 예배에 데려오기 위한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런 전도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너 이거 때문에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 준거니?’ 우리의 새로운 전도는 방법이 바뀐 것 같지만

사실 비슷한 방법입니다. 약간의 과정이 추가 되었지만 여전히 일방적이고 목적이 동일합니다. 전 이런 전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찾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처음 서울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매일 캠퍼스에 나왔지만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거의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별로 없었습니다. 캠퍼스에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발을 디뎠지만 캠퍼스에서 저의 명칭은 그냥 ‘외부인’ 이었습니다. 그런 선교단체 간사에게는 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선교단체 간사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선교단체 간사모임은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런 선교단체 간사님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소소함을 넘어 커다란 즐거움이었습니다. 모임 중에 간사님들이 나누는 진지한 논의와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우스갯소리에서까지 겹겹이 묻어나는 캠퍼스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저의 마음에 크고 작은 울림들을 일으켰습니다.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Q.T하던 저에게 너무 숨통이 트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간사님께 캠퍼스 내에서 전도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관계성 전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성 전도에서 ‘전도’에 방점을 찍는데 그 방점이 ‘전도’가 아니라 ‘관계’에 찍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간사님의 이 한 마디는 혼자 고민하던 저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었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결과에 참 많이 집착합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도는 과정 자체가 전도여야 합니다. 관계성 전도라는 것은 관계 자체가 복음으로의 초청이고 복음의 실제적인 제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가장 좋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을 열어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전파 일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조금해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성경적으로 관계를 세워갈 때 분명 이 캠퍼스에는 복음적인 일들이 자연스러우면서도 급변하는 형태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전 그 이후로 조금한 복음전파보다 복음적인 만남을 꿈꾸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저희 단체는 몇몇 친구들과 소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중강예배 때 광고시간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서기연에서 시작한 문화사역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격렬한 거부반응에 대해 고집스럽게 우리의 방식으로 일관하기보다 어떻게 캠퍼스 내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나갈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우리가 다가가는 것조차 꺼려하는 그 영혼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유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학생들은 결국 이미지 개선을 넘어 복음적인 사역을 꿈꾸기 시작했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문화를 바꿔나가고 복음적인 문화를 세워나가 고자 하는 그들의 도전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전 지난 중강예배 이후 문화사역 TF팀에 동참하고 싶다는 문자를 용기를 내어 보냈습니다. 이래봐도 직업이 간사라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 팀에 지원하는 목적이 왜곡되지는 않을까? 학생들이 잘 하고 있는데 괜히 내가 나서지는 아닌가? 하는 걱정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이 분명 캠퍼스에 복음을 우겨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흐르게 하고 또 씨앗을 심는 사역이라 믿었기에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이제 함께 연합하며 그러갈 복음이 흐르는 캠퍼스가 기대됩니다. 타인을 희생시키고 짓밟는 문화가 가득한 캠퍼스에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된 영역을 더 많이 소외시킴으로써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해가려는 바벨과 같은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먼저 소외된 이들에게 거룩한 오지랖을 떨며 섬기고 희생하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이뤄가고 함께 동역할 생각을 하니 요즘 멈춰있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 사역에 대한 많은 기도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답을 주는 지성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감성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동행해줄 영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빠르게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청년들은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다가 이제는 찾는 방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들과 그 길을 동행해줄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울대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캠퍼스의 영혼들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다가가서 모든 지체들의 손을 잡고 함께 빛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갈 때 캠퍼스는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 아름다운 관악동산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이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항목 간사 (ESF)

수련회 간증

CMI 전국 바이블 캠프를 다녀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16년도 여름방학부터 CMI의 대표로 섬기게 된 약학대학 13학번 오은총입니다. 이렇게 저희 단체의 활동 내용과 이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기쁩니다. CMI 전국 바이블 캠프는 전북 고창 유스호스텔에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Come back home"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이블캠프는 제가 지난 '목자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한 전국단위 CMI 모임이었습니다. '목자학교'는 그 이름처럼 한 영혼을 돕는 목자가 되기 위해 훈련하고 공부하는 학교 형식의 모임입니다. 이때는 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 목자들은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블 캠프는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캠프로, 개회와 폐회 예배를 제외한 모든 말씀을 각 지부의 학생 목자들(리더)이 준비하여 전하는 것이 특징인 캠프입니다.

지난 겨울 목자학교 때는 모든 분들이 낯설어 제가 조금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이블 캠프에서는 그래도 목자학교 때 얼굴이라도 익힌 분들이 많아 그런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목자학교 때 소그룹 조장으로 섬긴 경험이 있어서 이번 바이블 캠프 때에도 조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목자학교에서 한 번의 경험이 있어 두려움이 덜했고, 당시 조장을 하면서 얻었던 교훈들과 즐거운 기억들이 있었기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조장으로 섬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함께 GBS(그룹 성경 공부)를 하며 무슨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떤 삶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2조의 조장을 맡게 되었고 두 분의 자매들과 조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에 섞여 살며 신앙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새로운 말씀과 감동을 소망하는 조원 분들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도 같은 기도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GBS를 이끌어가며 지금은 자신이 없고 여력이 안 된다는 말로 일대일 성경공부로 돕지 못하는 후배 친구도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 조의 모습처럼 후배와 지도 양과 목자로 만나 서로의 삶을 이야기 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캠프에서 말씀 전하시는 학생 목자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저를 부르시며 제가 주님 찾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누가복음 19:1-10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 열등감으로 가득 차있었던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스스로 어떤 목표를 만들어놓고 성취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도 못한 것처럼 느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는 명성과 지위가 저를 높여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오로지 주님만이 제 삶의 목표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 첫 GBS말씀이었던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 같은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언제나 작은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

니다. 그저 아버지의 곁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스스로를 대견하다 여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작은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너무도 반가워하는 아버지를 보며 큰아들은 화를 냅니다. 저에게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만족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직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판단을 내리곤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더욱 깊이 공부하며 이해되지 않더라도, 불만스러운 마음부터 들더라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저 역시 주제 4강 메신저로 세움을 받아 누가복음 23장 '십자가에서 외면당하신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강단에 설 때까지 내가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날의 십자가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너무 컸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정작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가 외면한 예수님. 그런 나에게 용서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든 은혜들이 너무 무겁고 커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과연 절반이라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된다 하시는 대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한 후에도 부족했던 기도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했던 오만했던 스스로를 반성하며 다른 모든 말들이 잊혀져도 좋으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기를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한 저를 느끼며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를 너무 키워놓은 저 자신을 뉘우쳤습니다. 이후 은혜 받았다고 말해주는 형제자매들과, 수고했다 말해주는 간사님들을 통해 위로 받으며 괴로운 마음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기도가 부족했던 저를 반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캠프기간 동안 여유로웠던 스케줄 덕에 조원들과 또 같은 방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좋았습니다. 말씀공부와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은혜 받았지만 함께 섬기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도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모두가 캠프에 참석하여 반짝 섬기다가 다시 세상에서 자기 삶을 살겠지 하는 조금은 시니컬한 생각이 있었는데, 관계가 깊어지며 신앙적인 다짐도 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든든한 동료가 있는 느낌이 들며 세상에 나가서도 여기서 함께 느낀 것을 지켜가고 싶어졌습니다. 바이블 캠프가 모두 끝난 뒤에도 대전과 충청에서 형제자매들이 서울로 올라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번 캠프의 백미는 엄청난 양질의 음식이었습니다. 모든 식사에 고기반찬이 빠질 일이 없었고 마지막 저녁식사 때는 통돼지 바비큐를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먹었습니다. 모든 배식과 정리 등은 간사님들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간사님들은 별 것 아니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 섬김의 자세를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나의 양을 도울 때 저 정도의 정성으로 하고 있는가, 내 몫의 고기를 포기해가며 내 양을 먹일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들었고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시간마저 은혜로운 캠프였습니다. 수박은 또 어찌나 맛있었는지... 지금 서울에 올라와 먹는 수박들은 수박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맛이었습니다. 고창 수박 대단합니다.

수양회 혹은 캠프를 갈 때 3박4일 정도 되는 긴 시간을 모두 한 가지 활동을 위해 쏟는다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 하기를 즐기는 저는 특히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캠프기간은 전혀 길거나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여기서 마무리된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은혜와 사귄 즐거움이 가득했던 캠프였습니다. 함께 섬기는 다른 지부의 동역자들의 눈물을 보았고, 초신자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짐을 정리하고 하나둘씩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는 차에 올라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드는 그 시간까지, 이번 바이블 캠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은총(약대13)

수련회 간증

정해진 길로의 부르심과 만남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가거나 새로운 단체에 가면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를 묻는지를 꼭 물어보곤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주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을 겪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면서 본인의 의지로 만났다고 대답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았던지라 대부분 믿음이 강하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으며,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질문이 나오면 모태 신앙이라고 답합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하면 사람들 반응은 주로 '아, 이 친구 믿음이 확실하겠구나.', 또는 '나는 어렵게 주님을 만났는데 모태신앙이라니 부럽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모태신앙이기에 불만이었고 믿음이 확실치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어렸을 때 저의 의지대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모님 두 분 다 믿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당연히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야하고 당연히 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해야 하는 생활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나의 믿음은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

가 없었고 허수아비 같이 모양만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한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다시금 부모님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오는 믿음은 없었고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시작된 신앙만이 마음속에 남아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일요일에 교회보다는 친구들과 놀게 되고 약속을 가게 되는 등 점차 제 모습은 나태해지고 신앙의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고 있던 저는 아주 우연히 학교 관정도서관에서 중학교 동창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교회도 안 나가고 있던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새로운 교회로 옮기면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상태였는데, 놀랍게도 우연히 만난 친구가 CCC에서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정말 이름만 들어봤던 CCC에 참여해보기로 했고, 그 중 첫 번째 활동은 바로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하필이면 여름수련회 기간에 친구들과의 여행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솔직하게 처음에는 '믿음도 없는데 수련회 가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앞섰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말씀하신 당일 날 바로 우연히 CCC친구를 만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련회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아는 친구가 중학교 동창 한명 말고는 없었지만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계절 학기를 수강하고 있었던 터라 늦게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놀람을 넘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 사람의 끝이 보이지 않는 광경이었

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교회 수련회를 다녔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과거에 Eminem 콘서트를 갔었을 때 8만 명 정도 모였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함께 같은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박성민 목사님의 놀라운 설교도 들으면서 변화해 갔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지만 마치 예전부터 친했었던 것 같은 CCC사람들과 함께 자고 밥도 해먹으면서 친해졌고 추억도 쌓으면서 함께 신앙에 대해서도 나누고 큐티도 하면서 새롭게 배운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정에 기억에 남았던 것은 비가 엄청나게 내린 날이었습니다. 우산이나 우비로는 막아지지 않는 엄청난 양의 비였기에 평범한 엠티였다면 온갖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짜증을 낼 법도 한데, 너무나도 행복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감동적이기도 했고 놀라웠습니다. 머리부터 옷, 신발까지 모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끝까지 말씀도 듣고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이 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이 비로 뒤덮인 이 날에 모태신앙이었으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던 제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느낌이 들었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에 집으로 떠날 때에는 '아, 오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방황과 슬픔과 분노로 뒤덮였던 인생이 한 번에 모두 바뀌지는 않았지만 드디어 하나의 빛줄기가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불성실하며 항상 죄를 짓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일삼았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단 하나뿐인 자녀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 어떠한 말로도 감사함을 표현할 수 없는 친할아버지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키가 183cm가 넘으시고 건강하게 항상 운동하시며 게으르지 않으시고 평생을 학교에서 제자양성에 힘쓰셨던 할아버지가 올해 1월에 췌장암 말기를 선고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기독교 신자였던 저희 집안에서는 너무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며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정리하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면, 할아버지께서는 이 나이에 심장마비나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천천히 정리하고 갈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몸이 더 약해지시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2일에 한번 씩은 꼭 병문안을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께서는 몸이 그렇게 아프신데 불구하고 본인은 죄가 없기에 기도를 드릴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데려가시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막겠다고 기도하기보다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도 계속 할아버지에 대해 기도를 드렸고 순모임에서도 나누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췌장암에 투병하시던 도중 설상가상으로 폐렴에 걸리셨습니다. 노인 분들은 폐렴에 걸리면 95%이상 사망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원하셨을 때 의사선생님께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폐렴이 생기면서 일주일 안에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예상보다 너무 일찍 떠나시는 것 같아 온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온가족이 모여 병원에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는 찬송가도 따라 부르셨고 '아멘'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평생 주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교회도 가지지 않던 할아버지께서 음성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마.'라는 음성을 들으셨다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폐렴이 말끔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저희 가족을 포함한 병원의 모든 관계자들이 놀랐습니다. 어떤 약이나 수술을 하더라도 고칠 수 없던 폐렴이었기에 의사는 높은 강도의 산소 호흡기를 떼고 주변에 있던 복잡한 기계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계셨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폐렴이 사라진 것입니다. 놀란 의사는 다시 모든 장비들과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왔고 할아버지께서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이때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어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께서 음성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교회와 주님에 대해 잘 모르시고



관심도 없으셨던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시고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끝까지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신 그날, 목사님과 온가족이 할아버지가 주님을 만났음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구원의 확신을 받으셨고 눈물을 흘리면서 웃는 입모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평온한 얼굴로 가신 분은 처음 봤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이 무너졌지만 한편으로는 할아버지께서 주님을 만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셨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손으로서 상주를 하는 동안 할아버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던 순원들이 찾아와주었습니다.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었고 말로는 표현 못할 만큼 감사했습니다.

아직은 CCC에 들어 온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순원이지만, 앞으로 주님 안에서 나아가면서 옆에 있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순장, 순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잠시 중심이 아닌 옆에 두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깊은 기도와 올바른 마음으로 좋은 CCC사람들을 만났으며, 할아버지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도록 온 마음 다해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방학, 올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다시 내가 아닌 주님을 둘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다시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정직하고 성실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준 CCC친구들과 순장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아직은 철없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저를 붙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군대에 있지만 저를 CCC로 불러준 친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송호재 (건설환경공학부 14)

<1970년대 기독교인 선배들의 발자취>



지난 6월, 1970년대 기독교학생운동에 헌신했던 문영보 동문이 기독교수협의회 총무인 남승호 교수(언어학과)에게 당시 기독교학생들의 활동을 담은 문서들을 보내왔다. 그 중에는 1970년대 서울대학교 총기독교학생회에서 주최한 수련회와 부흥회의 안내문과 보고서, 찬양집, 사업보고서, 그리고 서울대학교 기독교 동문회에서 발행한 《기독교신문》 등 귀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독교신문》과 수련회 보고서는 당시 기독교 선배들의 모습과 활동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수련회 보고서

속의 간증문들은 하나님을 향한 선배들의 순수하고 뜨거웠던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이런 문서들을 통해 선배들의 열정과 사역을 알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용기와 도전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이런 문서들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다. 그러기에 현재 서울대학교 기독교인들의 교내 및 교외 활동과 간증을 담은 《진리는 나의 빛》 신문사역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년 개강호와 종강호가 나올 때 마다 우리는 학교의 각 기독교인 단체들과 개별 지체들의 최근 소식과 은혜가 넘치는 다양한 간증들을 읽을 수 있지만, 글로 남는 우리 신문은 이렇게 한 번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습과 활동들에 대한 기록은 현재의 우리들에게는 반성과 도전을 주며, 먼 훗날 후배들에게는 용기와 도전을 줄 것이다. 《진리는 나의 빛》사역을 통해 앞으로도 서울대 기독교인들의 다양한 일들을 기사로 실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한상희 기자

단대기연 소식

간호대

간호대 기독교인 모임은 예수님을 믿는 간호대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매 학기 의대, 치대 학생과 연합하여 병원 교회에서 개강, 종강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비록 간호대의 빡빡한 학사일정으로 인해 정기적인 모임은 못 가지고 있지만 개강과 종강예배를 통해 연합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간호대 기독교인 모임이 유명무실한 자리가 되지 않고 간호대 기독교인 학생들이 연합하는 자리가 되길, 척박한 연건 캠퍼스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표 연락처: 박윤서 010-4846-1907

경영대

경영대 기독교인 모임(경기독)은 기독교인들의 연결과 하나 됨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경영대 학우들이 함께 모여 진로와 학업, 신앙생활 등의 영역에서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 받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과 선택들로 혼란스러운 대학 생활 가운데, 경영대 기독교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신앙을 더욱 두텁게 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기 모임에서는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를 하고, 지도 교수님 지도 하에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점심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됩니다.

기도제목: 경기독 지체들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 된 삶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표 연락처: 고준석(경영13) 010-2900-8290

공대

공대기독교인연합은 서울대의 공대생 기독교인들의 모임입니다. 단대가 워낙 크다보니 공대 단대만의 정기적인 모임은 없지만 각 과별로 기독교인 모임이 세워져 성경공부하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과 안에서 기독교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과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선해양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산업공학과 등 기독교인 모임이 세워지지 않은 과들도 기독교인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공동체가 속히 생기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지난 학기에는 윗공대 기독교인들의 부활절 계란나눔, 신입생과 기독교수님들의 만남, 개종강예배 등의 시간을 통해 공대 기독교인들이 교제하고 섬기며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학기에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여 공대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공대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대표 연락처: 구영현(에너지자원공학 13) 010-5062-3061

농생대

농생대 기독교인 연합(농기연)은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길 원하는 모든 학우들에게 열려있는 모임입니다. 저희는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학기 중에는 금요일마다 예배와 삶나눔으로 이루어진 정기모임을 가집니다. 지난 학기에는 버들골에서 농기연 지체들과 봄을 누리며 풍성한 교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기연 문화사역, 새터 꿀물봉사와 농생대축제 책갈피 나눔 등을 통해 캠퍼스를 섬겼습니다. 농기연이 앞으로도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가운데 다음 대표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서현(식공14) 010-4736-7116

미대

미크모는 미대 크리스천 모임의 약자로 미술대학을 대표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1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시간이 맞는 구성원끼리 모여 기도를 합니다. 1학기엔 학교 축제에서 장터를 열어 홍보와 친목도모를 하고, 2학기엔 작품을 준비해서 프로클레임을 다 함께 열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는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합니다. 미대에서 신앙생활을 할 도움과 의지할 곳이 필요한신 분은 미크모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연락처: 박한나(디자인 15) 010-2581-4056

사범대

사범기연은 요한복음 13:34~35 말씀을 따라 사범대 내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사범기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범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범대와 세상 속에 흘려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범기연은 매주 기도회를 통해 사범대를 사랑하고 품으며 기도합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 사범기연 지체들끼리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범기연이 해왔던 일에는 여명학교 교육봉사와 복음자리, 새터 꿀물봉사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속해서 사범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범대 학생이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사범기연입니다. 사범기연은 캠퍼스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범대 기독교인 학생들이 서로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사랑을 누리며 쉬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범기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표에게 연락 주세요

기도제목

1. 사범기연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키기 힘쓸 수 있도록
2. 사범기연과 각 과기독이 서로 더욱 협력할 수 있도록
3. 계속해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마음 품은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4.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해내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대표 연락처: 강한나(사회교육 15) 010-2250-3211

사회대

사회대 기독교인 연합은 사회대에서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사회대 신양 3층 301호를 동아리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서울대의 연합을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으니, 동아리방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주저 말고 제게 연락해주세요!).

사회대에서 공부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고민과 삶의 여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저희 사회대 기독교인 연합은 매주 정기 모임과 점심 모임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기 모임은 금요일 저녁에 아까 소개드렸던 사회기연 동아리방에서 모입니다. 화요일 점심 시간엔 감골 식당에서 점심 모임도 하고 있으니, 고학번이라고 혼자 식사하지 마시고 함께 해요~!!

학문이라는 조류가 밀려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점차 지워져만 가는 것 같은 사회대에서, 사회대의 기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회대 기독교인 연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대에서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혼자 아니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연락처: 김기찬(언론정보 13) 010-8708-6233

생활대

생활대기독교인모임 예혼입니다^^ 예혼은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뜻으로, 같은 생활대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생활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려 모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식사교제와 말씀묵상·기도모임, 시험기간 간식나눔 등이 있습니다. 혹시 예혼이 궁금하시다면 관심과 연락 대환영입니다! :)

모임 시간 : 주 1~2회 아침 8시 또는 점심 12시반

모임 장소 : 222동 B110호 동아리방

대표 연락처 :

최지혜(소아14) 010-4119-3940

유예나(소아14) 010-5383-6415

약대

1992년 처음 시작된 약대 기독교인 모임 새벽빛은 올해로 25기 신입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가장 주요한 활동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식사를 하며 교제하고, 짧지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학기에는 더욱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학우들을 응원하고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초콜릿 행사가 있습니다. 약사고시를 100일 앞두고는 새벽빛 선배들을 응원하는 행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시험 때문에 점심시간을 내기도 빠듯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새벽빛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빛 개개인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약대 동문들이 복음을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작은 저희 단과대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동문 지체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약대 14 한근희 010-7173-4909

인문대

안녕하세요, 인문대기독교인연합(이하 인기연) 대표 국문학과 14학번 문요한입니다. 저희 인기연은 매주 수요일 점심(12시 반~ 2시)에 5동 114호에서 같이 식사하며 정기모임을 갖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인문대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매 시간은 열띤 토론(좋게 말해서 토론이지 그냥 수다 떠는 시간입니다..)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매주 학내, 학외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뉘보고 또 크리스천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을지 나누는 것이 저희의 주된 활동입니다.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빠박하고 딱딱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임은 아닙니다. 대신에 어느 단대기연 모임에도 뒤지지 않는 굉장한 단합력(!)과 친화력(!)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신앙생활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이 주제 저 주제로 수다 떨기 좋아하시는 분들! 인기연 모임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연락처: 문요한(국어국문 14) 010-7615-5586

자연대

저희 자연대 기독교 연합 모임은 단대 차원으로 모이는 모임에 비해 과별 기독교모임에 훨씬 집중하여 매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매 학기 개 • 종강예배와 복음자리(친구초청잔치), 기독교신입생과 교수님과의 만남, 학기 쫄모임 등의 행사를 통해 타 과기독교와의 연합 모임도 놓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자기연의 존재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아래 과 기독교 대표 분들께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요^^ 자기연은 기독교인 연합이라고는 하지만 벽을 쌓아 놓고 내부적 • 폐쇄적인 모임이 아니고 자연대 정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만큼 크리스천 및 모임에 관심 혹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열려있으니 관심가지고 부담 없이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연락처:김유정(물천 14) 010-3638-7352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기독교인 연합, Shelter를 소개합니다. Shelter는 세상의 기준 속에서 지쳐가는 자유전공학부의 학우들과 캠퍼스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기독교인들에게 실만한 물가가 되고자 하는 선배들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여서 서로에게 위로가 될 때에 자기연이 캠퍼스 내에서 진정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기연은 이번 학기 주 1회 점심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교제의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주세요.

기도 제목: 먼저는 자기연이 Shelter의 이름과 비전을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분주해져만 가는 상황 가운데 공동체에 모임의 시간과 장소가 허락되기를, 공동체 내에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 갈 수 있기를, 공동체가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대표 연락처: 자유전공학부 13학번 박동글 (010-3853-1408)

선교단체 소식

CCC

안녕하세요! 민족복음화의 최전방 서울대 CCC(Campus Crusader for Christ)입니다! CCC는 'Movements Everywhere!'라는 구호를 들고 캠퍼스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향력 있는 제자들로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CCC는 여름방학의 시작과 동시에 CCC전국대학생여름수련회에 참석하여 집중적인 전도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였습니다. 이후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고자 2주간의 태국 치앙라이 지역 단기선교를 통해 태국 2개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고 현지 교회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또한 성령충만을 주제로 매주의 성경공부를 진행하여 지체들이 성령충만한 방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제자로 성장하고 캠퍼스 복음화의 꿈을 함께 이뤄나길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연락주세요!

김민지(바시소 14) 010-4514-0962, 옐로아이디-서울대CCC

CMI

CMI는 여름 방학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말씀과 기도에 대한 말씀 등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8월초 국제 선교사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하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 CMI는 예배 이외에도 새내기들의 일대일 성경공부와 선배목자들의 메신저 훈련에 힘썼습니다. 7step 교재를 통해 이제 막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새내기들이 좀 더 말씀에 친근해 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선배목자들은 간사님께 성경공부를 이끄는 법을 배우고 메신저로 서서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북 고창에서 전국 CMI 바이블 캠프가 열렸습니다. 바이블 캠프는 초신자들을 위한 캠프로 준비되었습니다. 저희 서울대지부의 목자들이 모두 조장으로 섬겼고, 메신저로 서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등 주님의 종으로 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목자의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즐겁게 보낸 3박 4일의 캠프로 초신자 새내기의 마음이 열렸고, 더욱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8월 26일~27일 '굿 닥터' 라는 제목으로 개강수양회를 가졌으며 이후 가을수양회와 CMI 서울지부 연합 수양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연락처: 오은총(약대13) 010-3284-3455

Emmaus

Emmaus 는 서울대의 유일한 영어 기독교 선교단체로서 제외국민, 외국인,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누가복음 24:13-33 에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들과 같이 인생이라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랑과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Emmaus 는 기숙사 920동 지하 1층에서 매주 화요일 7시에 large group (예배와 성경공부)를 갖습니다.

Emmaus is a Christian campus ministry in Korea serving English-speaking college students. We host weekly large group and small group gatherings throughout the academic semesters. Students of various denominational backgrounds and local churches are welcome to join us. Whether you're in Korea for one semester or four years, come join us for an unforgettable walk on the Emmaus road!

대표 연락처: 수의15 윤미선 010-2506-9619

ESF

안녕하세요! ESF대표, 지구환경과학부 한하평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다시 학교로 모인 학우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ESF(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는, 복음전파에 관한 사도행전 1:8의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근거로 캠퍼스복음화, 성서한국, 세계선교를 목표로 설립된 복음주의 학생 선교단체입니다. 일대일과 그룹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캠퍼스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서울지역 타 캠퍼스들과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아침 큐티모임을 통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MT와 소풍 등을 통해 서로 즐거운 교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에는 뜨거운 여름 날씨 만큼이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에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으며 수양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학기에는 그룹 성경공부와 목요일예배, 새친구초청 행사 등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관악지구 한하평 010-2674-3075

IVF

캠퍼스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운동, IVF를 소개합니다. IVF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 연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며 품어가기를 가르치고 배우고 소망하는 선교단체입니다.

IVF는 매주 화요일 LGM(큰모임)으로 모여 말씀을 듣고 서로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을 갖구요, 소그룹을 편성하여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길 이번 학기를 기대해 주세요.

대표 연락처: 소금 : 컴퓨터공학부 14학번 정도환 (010-3456-3781)

빛 : 불어불문학부 12학번 배소정 (010-6601-5654)

JOY

안녕하세요. JOY선교회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를 줄인 말로,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으로 여길 때 참 기쁨(JOY)이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매주 목요일에 JFM (Jesus First Meeting)으로 예배를 드리고, 학기 중에 OSM (Others Second Meeting)을 통해 이웃을 둘째로 하는 정신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전국 수양회와 지부별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외에도 학기 중엔 엔조이(New Joyer)모임, 엠티, 소풍, 방학 중엔 방중모(방학 중 모임), 여행으로 모이고 서로 교제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엔 동해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저희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해요♡

형제대표 김승주 010-7726-3242

자매대표 임지혜 010-6404-2701

LDI

LDI(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

안녕하세요! 새학기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새내기 여러분, 재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DI는 비전이 없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 성경이 말하는 비전, 생명을 살리는 비전, 생명이 성장하여 열매 맺고 재생산하는 비전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캠퍼스뿐만 아니라 직장, 사역지 등 청년들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의 작은 겨자씨들을 뿌리며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날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LDI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세워 주님의 지상최대의 명령(마태복음28:19,20)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며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쓰임 받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의 사명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캠퍼스에서는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앙, 학업, 대인관계 등 전인격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일대일 멘토링,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노방전도 훈련, 소그룹 성경공부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모임에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며 기도하고, 또한 캠퍼스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이 인격화 되는 순종훈련을 통해 형제자매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실 마음 따뜻~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LDI 사역과 모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환영해요!

<학기중 모임 소개>

*서울대 전체모임: 매주 화요일 늦은 6시 30분, 6동 103호

학부대표: 민소연(종교13) 010-2262-8652

대학원대표: 김지나(생물정보 박사과정) 010-4118-2705

SFC

안녕하세요, SFC(Student For Christ, 학생신앙운동)입니다. 방학은 모두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방학에 SFC대학생대회를 다녀오고, 방중모를 통해 서로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즐거운 방학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다가오네요. 새 학기에도 매주 목요일 늦은 6시에 학생회관 419호에서 진행되는 큰모임과 주중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작은모임이 계속 진행될 것 같고, 아침에 진행되는 아침기도회 또한 계속해서 진행될 듯해요. 모임들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방학 중에 SFC 관련된 기사가 터졌는데, SFC 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마음을 합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곳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새로운 학기에도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대표 연락처: 이명원 (지구환경과학부 12) 010-3012-1364

UBF

UBF는 University Bible Fellowship의 약자로서, 한글 명칭은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입니다. 그 이름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과 전 세계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내의 복음 전도와 학문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즉 신앙의 절대가치인 그리스도와 대학의 가치인 자신들의 전공을 기초로 일생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며,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사명과 21세기를 향한 분명한 VISION을 찾도록 돕습니다. 또한 탁월한 LEADERSHIP을 가진 이 시대의 사명인,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우는 단체입니다. UBF에서는 선배와 후배가 함께 1대1로 성경을 배워보는, 1대1 성경 공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동아리 방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QT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기 중에는 매주 한 번씩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며 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아리 방: 75동 1층 109호 (농대식당 옆 대학신문 건물)

연락처: 간사 - 변다니엘 010-4035-3504

학생대표 - 전기13 하디모데 010-3523-4913

UDC

UDC는 "Union Disciple for Christ"의 약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들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모임의 목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마 28:19-20)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사명에 순종함으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성경공부와 일대일 교제를 통해 한 영혼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학기 중 모임은, 매주 월요일 오후 4:00-5:00에, 39동 B116호에서, 찬양하고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00-11:00에는 성경읽기 모임과 탁구 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 일대일 개인 교제는 각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시간의 제한 없이, 그 영혼의 필요에 맞춰서 가져주고 있습니다.

대표 연락처: 조현호(경제 12) 010-9465-2453

YWAM(Youth With A Mission, 예수전도단)

(학기중) 화요일에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에는 서울 지역의 모든 YWAMer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화요일 캠퍼스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하며 멤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외에도 1:1 양육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기초를 배울 뿐 아니라, 믿음의 멘토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대학 생활을 함께 할 든든한 친구를 얻기도 합니다.

(방학중) 여름에는 국내, 겨울에는 해외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지역 교회와 선교사님을 섬깁니다. 이번 여름에는 해남과 진도를 방문하여 교회 아이들과 함께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매년 겨울에는 탄자니아와 N국을 방문하여 우물탐사 사역, 수학&과학캠프 사역, 현지 대학생과의 문화교류 사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알리며, 가족 됨을 누리는 곳, 서울대 YWAM으로 여러분을 초청

합니다!

캠퍼스모임: 매주 화요일 6:00 28동 102호/ 캠퍼스 워십: 매주 목요일 6:30 아현감리교회 학생회관 416호에서 YWAMer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전예린 (화생공13) 010-5566-2260

네비게이토

네비게이토는 주님의 지상사명인 (마28:19-20)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방학기간 수양회와 성경공부, 풍성한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내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아침 QT 모임을 통해 각 사람이 주님과 친밀해지고 하루를 믿음의 시야로 전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암송과 성경읽기에 힘써서, 삶의 순간순간의 크고 작은 결정들에 말씀을 떠올려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고자 합니다. 점심 식사교제와 주말 스포츠 교제를 통해서는 격려와 힘을 주리고, 영육이 함께 건강해지며 교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 성경읽기 모임 : 수요일 5시 25동 강의실

- 성경공부 모임 : 토요일 11시 500동 강의실

대표 : 정석훈

연락처:010-9559-2738/tjrgns2738@snu.ac.kr

두루선교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9:35)

두루선교회는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것에 근거하여 지상명령 성취(마 28:18-20)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두루제자훈련은 교회와 평신도 중심의 제자훈련을 강조하며, 현재 회원들이 속한 지역교회를 바탕으로 서울대 외 10개 대학/고양외고를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직장/해외선교 등 전방위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 캠퍼스에서의 시간은 훈련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에 캠퍼스에서의 제자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캠퍼스에서 매주 소그룹 성경공부 및 매달 지부별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체육대회와 식사교제 등 성도간의 모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 연락처: 이다은(건축12) 010-7703-1913

직장선교학교

저희는 올곧게 말씀에 폭 빠지는 것을 목표로 한 단체입니다. 구체적인 접근 범위는 주석과 설교 지침서(성숙 정도에 따라), 나아가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까지를 다루는 영성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삶의 현장에서 목회자의 도움 없이도 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말씀이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연약하게 넘어지지 않는 영성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막연한 감상주의적 신앙은 환경에 무너지며 세상 가운데 쉽게 스러지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깨닫고, 지정의, 즉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신앙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문의 : 강준구 간사 (010-5174-4882)

한사랑선교회

한사랑선교회(The Love Mission)는 무한한, 영원한, 유일한, 하나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부르심을 받은 예수제자공동체입니다.

캠퍼스에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뜻에 반응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아침큐티와 양육훈련 그리고 기도모임이 있고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실" 통하여 복음 안에 있는 생명력이 열방에 흘러가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학생회관 421호

010-6372-6128(박승성간사)

교외 사역 보고

여명학교와 함께 뜨겁게 사랑했던 사범기연의 여름방학



사랑하는 서기연 지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학기부터 사범기연 대표로 섬기게 된 사회교육과 15학번 강한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자리를 통해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치열하게 사랑했던 저의, 그리고 사범기연의 여름방학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올 여름, 9명의 사범기연 지체들은 새터민청소년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서 3주 동안 교육봉사를 했습니다. 사범기연이 여명학교와 인연을 처음 맺게 된 것은 재작년 겨울방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때는 당시 사범기연 대표였던 이경진 선배의 개인적인 헌신과 노력으로, 아주 소수의 지체들만 함께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계기로 통로가 열려 작년 여름에는 사범기연에서 더 많은 지체들이 교육봉사 학점을 인정받으면서 봉사를 할 수 있었고, 저도 그 때 처음 여명학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여명학교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그전부터 통일과 교육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런저런 공부와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계기로 여명학교에 대해 알게 되고 봉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동안 감사하게도 제 것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여명학교를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봉사를 계기로 관심도 없던 사범기연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대표로 서기로 결단하는 순간에도 여명학교 교육봉사가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가을학기에는 혼자서 봉사를 하러 다녔고, 겨울방학에 사범기연 지체들과 함께 다시 여명학교에 돌아오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겨울방학에는 봉사가 불발되었고, 2016년 봄이 되었습니다. 작년의 감동을 기억하며, 올 여름에는 꼭 사범기연 지체들과 함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경진 선배와 함께 3월부터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계속 여명학교와 연락하면서 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1학기 종강날이 다가오도록 여명학교 측에서는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올 여름도 어렵겠구나, 체념하며 함께 마음 품었던 지체들에게 이제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려던 그 때, 갑자기 학교 측에서 함께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사범기연에서 주도하여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전체를 기획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학기가 종강하고 교육봉사 신청기간이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선생님께서 배려해주셔서 교육봉사 학점인정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내려놓고 포

기한 그 순간에 길이 열리고 오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기획을 시작하면서는 작년에는 알지 못했던, 대표로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들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여명학교의 상황은 너무나도 유동적이어서 끊임없이 바뀌는 반면, 교육봉사 학점인정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 사이를 조율하며 작년의 순수한 열정과와는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까지 과정에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7월 마지막 주부터 3주간 교육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주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저희의 기도를 성실하게 응답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는 학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스스로를 멘토라고 칭하기 민망할 정도로 저희보다 나이가 더 많은 학생들도 있었던 여명학교였는데 학생들이 저희를 선생님으로 존중해주었고 최선을 다해 배우려고 노력해주어서 감사했고,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을 전하고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또 끊임없이 계획이 엮어지고 학교와의 소통이 자꾸 어긋나는 상황 속에서도 여명학교의 선생님들과도 많은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표였음에도 첫 주를 참석하지 못했는데, 걱정하는 마음으로 2주차에 합류했을 때 이미 너무나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고 돌아가고 있어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위 '꿀교봉'도 아니었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때마다 자기가 하겠다고 먼저 나서주는 지체들이 있었고, 응원해주고 함께

해주는 지체들이 있어서 저 혼자 나가떨어지지 않고 3주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사실 기획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지체들이 대표인 저만 알 뿐 서로를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함께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봉사를 준비하고 실제로 진행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풍성한 교제를 이룰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기존에 사범기연 모임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지체들도 함께하여 교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그런 지체들이 여명학교 교육봉사를 통해서 사범기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사랑했던 사범기연의 뜨거운 여름방학은 감사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학기에 있었던 서기연 문화사역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명학교 교육봉사는 사범기연의 문화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범대생이라는 저희의 전문성을 살려서 저희가 가진 작은 지식으로 세상 속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귀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범대뿐 아니라 다른 단과대에서도 각 단과대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나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대기연들의 상황이 단대기연 외부까지 바라볼만큼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각 단과대마다의 특색을 살려 각 단대기연 안에서 문화사역의 정신이 흘러간다면 그 사랑을 받는 누군가에게도 유익이 될 뿐 아니라 단대기연 내의 사랑의 교제도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 다른 단과대에서도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자리들이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사범기연과 여명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강한나 (사회교육 15)

서기연 아침기도회에 초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 좀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도를 따라, 서로 다른 우리 서울대의 기독교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연합기도회입니다. 우리의 연합과 사랑함을 통해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전파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을 서기연 연합기도회에 초청합니다. 서기연 연합기도회는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서기연 동아리방(학생회관 416호)에서 드려집니다.

조예상 (2016 서기연 대표)



방학 중에도 서기연 아침 기도회는 계속되었다. 8월 29일 기도회를 마치고 찍은 사진